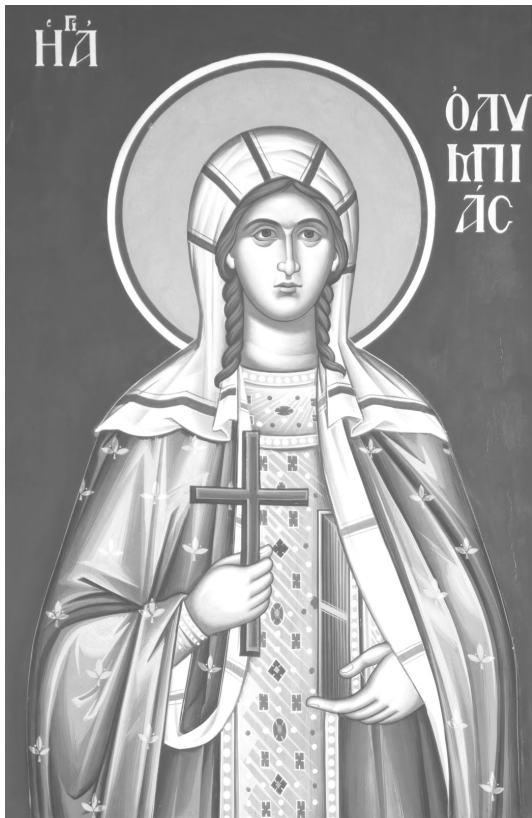




정교회 한국대교구 2021년 30째주 (7월 25일)

정교회 주보



성 올림비아다 봉사자

마태오 제 5주일

성 안나(성모님의 모친) 안식

제 4조, 조과복음 5

성 요한 크리소스톰 성찬예배에서

- 제 4조 부활 찬양송 / 82, A 214
- 주일 입당송 / 14, A 42
- 성 안나 안식 축일 찬양송 / 날짜별 성가집 173
- 성당 찬양송
- 주일 시기송 / 85, A 226
- 사도경 : 갈라디아 4:22~27 / 봉독서 548
- 복음경 : 마태오 8:28~9:1 / 110, B 39
- 기타는 보통 주일과 같음



교회의 기혼 성인들



성 올림비아다 봉사자

성 올림비아다는 4세기에 살았습니다. 부모님은 백작의 명예를 가지고 있는 잘 알려진 부유한 집안으로 성 올림비아다는 많은 학문을 쌓았고, 젊고 아름다웠습니다. 성 올림비아다는 신체적 아름다움, 지능, 학식 그리고 많은 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콘스탄티노플 네브리디오의 영주와 결혼했지만 얼마 후 남편이 죽고 아주 어린 나이에 과부가 되었습니다. 황제 테오도시오스는 그녀에게 공직에 있는 엘피디오를 두 번째 남편으로 받아들이길 독려했지만, 첫 남편에 대한 기억을 존중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재산으로 교회를 위해 헌신하려는 열망이 가득하여 두 번째 결혼을 거부하였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콘스

탄티노플 총대주교 요한 크리소스토모스에게 헌신하면서 크게 감동하여 수천 개의 금화와 영지를 기부하였습니다. 성 올림비아다는 교회에서 봉사자라는 직함으로 요한 크리소스토모스 성인을 도와 교회에 헌신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성 이리니 성당 근처에 수도원도 세웠습니다. 요한 크리소스토모스 성인께서 유배당하셨을 때 성 올림비아다도 큰 슬픔에 빠졌습니다. 요한 크리소스토모스 성인께서는 그녀를 위로하기 위해 많은 편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성 올림비아다는 요한 크리소스토모스 성인이 안식하고 얼마 안 되서 50세의 나이로 유배 중에 안식하였습니다.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나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루 중 특정 시간에만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께서는 사도 바울로를 통하여 성직자들과 수도사들뿐만 아니라 모든 신자들에게 “늘 기도하십시오...”(I데살로니카5:17~18)라고 명하고 계십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라는 명령은 성서의 다른 많은 곳에서도 반복되어 언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의문이 생깁니다. “우리는 가족이 있고, 직업이 있고, 그 밖의 많은 의무가 있는 세상에 살고 있으면서 어떻게 이 신성한 명령을 적용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 의문에 대해 교회의 교부들에게 답변을 듣도록 합시다.

"쉬지 않고 기도하라"는 것은 첫째로, 그리스도인이 하느님과 끊임없이 접촉(연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기도를 통해서나 기도를 하려는 마음을 통해서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이 사도적 권고는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쉬운 것입니다. 누구라도 음식을 먹을 때 하느님을 찬양하고, 걸을 때 하느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테오필라크 토스 아흐리도스 주교, 11세기)

두 번째로, 우리의 주의와 생각이 끊임없이 하느님께로 향할 때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공부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매일 생활에서 어떻게 하면 하느님의 뜻대로 살아 갈 수 있는가를 공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은 시편작가가 기술하고 있듯이 행복합니다.(1~2절) “기도의 한 부분이라고 여기는,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일로 분명히 증명되는 하느님의 계명을 지킬 때, 그리스도인은 실제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우리가 보통 기도라고 부르는 것도 기도의 일부가 되는 하나의 큰 기도와 연합되어 있다고 여긴다면,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라고 오리게니스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좋은 생각입니까! 하느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바로 이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일, 행동, 생각, 소망, 그리고 일상적인 기도를 통해 우리의 삶 전체가 하느님께 바쳐지는 향기로운 향이 되는 것입니다.



에비아의 야고보스 성인(1920-1991) 2

야고보스 성인은 믿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시련과 유혹을 견디며 살았습니다. 성인이 살던 수도원은 매우 가난했으며, 찬바람이 창틈으로 들어와 방을 얼음장처럼 만들었습니다. 생활에 꼭 필요한 물건들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하였고, 심지어는 겨울옷과 신발도 없어서 성인의 몸은 추위에 덜덜 떨어야했으며, 자주 아프기도 했습니다. 또한 보이지 않는 사탄과 늘 싸워야했는데, 성인은 순종과 온유함, 겸손을 지니는 한편 우리 교회가 제공하는 최고의 무기인 금식과 철야예배, 성찬예배와 기도로써 사탄을 물리쳤습니다.

성인은 대단한 금욕적 삶을 실천하였는데, 성인의 전기를 쓴 작가는 성인이 마치 새처럼 적게 먹었다고 전합니다. 성인은 밤에 바닥에서 겨우 두 시간 정도만 자고 밤새도록 기도에 전념하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성인은 이렇게 말하곤 하였습니다. “저는 아무 것도 하는 일이 없습니다. 제가 무엇을 하든지 그것은 저를 도와주시는 하느님과 다비드(성인이 계시던 수도원의 수호성인) 성인이 하시는 것입니다.”

성인이 보여준 겸손은 성인의 주된 특징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성인은 말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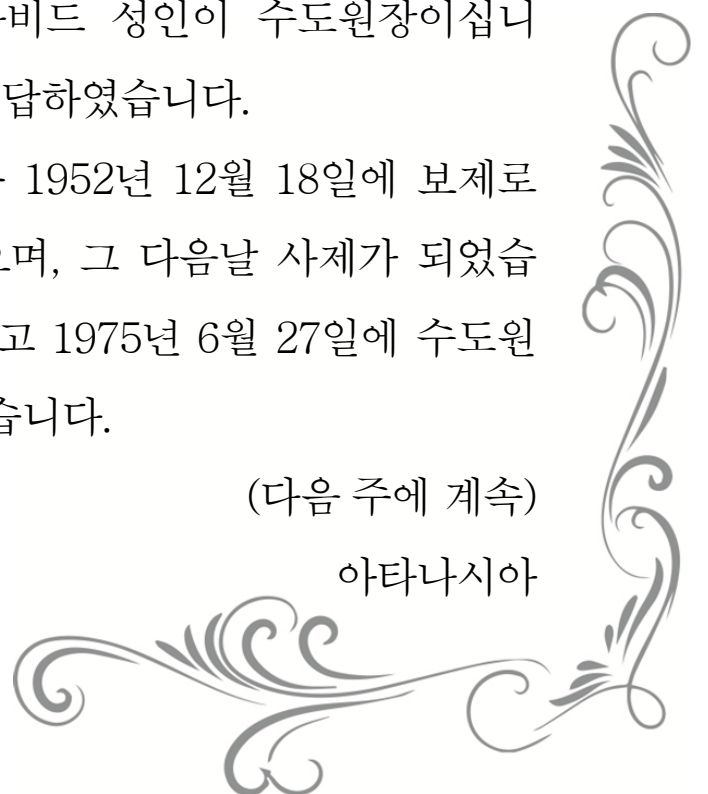
할 때도 언제나 항상 ‘저를 용서해주십시오’라고 말하곤 하였습니다. 한번은 성인이 그 지역의 다른 수도원을 방문하게 되었는데, 성인은 물음에 대답하면서, ‘사랑하는 수도사님들, 저는 죽은 개일 뿐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뵈러 온다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그저 공기를 오염시킬 뿐이지요’라고 말하였습니다. 성인은 언제나 자신이 아무 것도 아닌 존재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인은 수도원장이 되고나서 언제나 말하기를, ‘다비드 성인이 이곳의 수도원장이십니다’라고 하였습니다. 다른 사제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때면 성인은 다른 사제가 중앙에 서게 하고, 자신은 제단 귀통이로 가 있곤 하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제들이 “이건 옳지 않습니다. 당신이 수도원장이십니다”라고 말하면, 성인은 “아닙니다. 다비드 성인이 수도원장이십니다”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성인은 1952년 12월 18일에 보제로 서품되었으며, 그 다음날 사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975년 6월 27일에 수도원장이 되었습니다.

(다음 주에 계속)

아타나시아



대교구

■ 수도권 코로나19 방역 4단계

코로나19 거리두기 방역 단계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은 4단계로 격상되었습니다. 지침에 따라 서울 성 니콜라스 대성당과 인천 성 바울로 성당 그리고 가평 구세주 변모 수도원에서는 이번 주일(7월 25일)도 비대면 예배가 거행됩니다. 즉, 성직자와 봉독자 외에 신자들은 참여가 불가능합니다. 다른 지역의 성당들은 지역의 방역 단계에 맞춰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서울 및 수도권의 신자들과 지역에서 성당에 가지 못하는 신자들은 한국정교회 유튜브 채널에서 중계하는 주일 성찬예배 실시간 온라인예배에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매우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모두 매일 밤 10시 기도를 통해

코로나가 빨리 우리 생활에서 사라질 수 있도록 기도해주시고, 한국정교회 유튜브를 통한 성서공부와 줌 온라인 각 단체 모임을 통해 우리가 영적으로 유익한 양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합시다.

■ 성모안식 축일 준비

8월 15일 성모안식 축일을 맞이하여 8월 1일부터 14일까지 엄격한 금식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매일 오후에 <성모소기원의식> 예배를 드립니다. 참석을 원하는 신자들께서는 미리 성당 사무실에 신청하시고 코로나 19 방역 지침을 지키면서 <성모소기원의식> 예배에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식을 통해 영적, 육적으로 우리들의 욕구와 욕망을 절제하면서 축일을 잘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합시다.(8월 6일 구세주 변모 축일에는 생선류만 허용됩니다.)

